

포스트휴먼 유토피아?*

-공진화와 탈진화 사이의 포스트휴먼 인류-

김 응 준**

- I. 들어가는 말
- II. 인간 그 이후의 진화
- III. 진화하는 인간에서 포스트휴먼으로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포스트휴먼 시대의 자연 진화와 과학기술적 진화의 상관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자연 진화가 과학기술적 유용성과 효율성의 지배를 받게 되며 또한 그 통제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과학기술적 낙관성이 지배할 것이며 인류는 더 이상 자연적 진화 과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사례로 본 논문은 자연 진화의 조율 및 조작 가능성을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공진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는 탈진화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기계적 존재와의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2550).

** 대전대학교 H-LAC 교수

공존이 포스트휴먼적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 크라흐트의 『나 여기 햇살과 그늘에 살리라』의 경우 - 또는 인위적인 인간 제작이 포스트휴먼적 탈진화로 이어지는지를 - 케르너의 『블루프린트』의 경우 -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두 작품은 인류의 도구수단인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적 의미를 넘어 오히려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인위적으로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인류의 유토피아적 낙관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주제어

휴먼, 포스트휴먼, 공진화, 탈진화, 테크노피아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생물학적 진화 이후의 인간 존재 가능성을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공진화(Coevolution)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을 도구삼아 생물학적 진화를 극복하려는 탈진화(Postevolution)된 인류의 존재의미와 그 가능성을 살펴본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을 세속적이자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지만 생물학적 진화론에 기반을 둔 인간이해는 점차 그 유용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휴머니즘적 인간이해가 변화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이 변화가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이 가정 자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¹⁾ 다시 말해 과학기술을 생물학적 진화와 함께 공존하는 상호보완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와는 달리 인간의 자연 진화를 조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초월적 존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인터랙션을 지속적 생존조건 추구라는 가정 하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로 인한 자연 진화의 조율 및 조작 가능성을 과학기술과 인류의 공진화라는 측면과 더불어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는 탈진화라

1)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Die Visionen des Posthumanismus*, Freiburg: Rombach, 2004, p.274. 이미 1970년대 말 야스트로프(R. Jastrow)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인류의 진화는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티플러(F. Tipler) 역시 인류 문명은 더 이상 인간 종(種)의 연속성과 존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는 인간의 생물학적 연약함을 테크놀로지로 강화하려는 모습과 더불어 생명체이자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초월적인 종의 모습, 즉 인간의 영원한 생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는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생물학적 자연 진화와 그 이후의 진화에 관한 논의를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살펴본다. 나아가 이에 대한 심층 사례로 인간과 기계적 존재의 공진화 가능성과 그 한계를 크리스티안 크라흐트(Ch. Kracht)의 『나 여기 햇살과 그늘에 살리라 Ich werde hier sein im Sonnenschein und im Schatten』²⁾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생물학적 자연 진화의 극복 가능성과 그 한계를 샤를로테 케르너(Ch. Kerner)의 『블루프린트 Blueprint』³⁾를 사례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인간 그 이후의 진화

데카르트(R. Descartes)가 인간을 일종의 기계적 움직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신과 영혼이 살아 숨 쉬는 존재로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신체와 정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지닌 존재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1748년 라 메트리(J. O. de La Metrie)는 『인간기계론 (L'homme Machine)』에서 인간을 고유한 인격체의 소유자가 아니라 기계와 동일한 종이라고 주장한다.⁴⁾ 그에게 인간이란 동력장치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다. 즉, 그는 기계를 인간에 종속된 도구수단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기계주의적 일원론에서 인간을 설명한 것이다. 데카르트와 라 메트리의 견해 차이는 휴머니즘의 키워드인 이성과 사유의 존재유무에 관한 것이다. 인간을 여타의 기계적 동물과 구분하는 잣대가 데카르트에게 이성

2) Christian Kracht: *Ich werde hier sein im Sonnenschein und im Schatten*, Köln: Kippenheuer und Witsch, 2008. 이하 본 논문에서는 <햇살> 또는 <SS> 로 축약 표기함.

3) Charlotte Kerner, *Blueprint*. Weinheim: Beltz, 1999. 이하 본 논문에서는 <블루> 또는 <BP>로 축약 표기 함.

4) Julien O. de La Metrie, *L'homme Machine, Die Maschine Mensch (germ.)*, hrsg. v. C. Becker, Hamburg: Felix Meiner, 2009, p.43ff.

적 사고와 사유였다면, 라 메트리에게는 이성과 사유라는 개념이 없다. 여기에는 오로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존재인 인간이 있을 뿐이다. 라 메트리의 견해는 휴머니즘시대의 인간이해에 기계적 인간이해 또한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의 특성과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품위에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명체를 바라보는 뒤링(E. Dühring)은 이미 19세기 말에 종의 몰락과 소멸을 자연생태계 생물체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의 근원적 요인들이 뒤엎킨 결과라고 설명했다.⁵⁾ 바로 이 설명은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의 견해와 맞닿아 있다. 한편으로 인간의 적응 결핍은 인간 종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라는 종의 종말 이후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할 것임을 진화모델은 암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종의 몰락과 더불어 새로운 인간 종의 등장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휴먼에서 포스트휴먼이라는 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결핍존재’인 인간은 휴머니즘 이후 새로운 주체성을 요구하게 되는데,⁷⁾ 일레로 모라벡(H. Moravec)은 “탈생물학적(post-biological) 초자연성(Supernatural)”을 포스트휴먼의 새로운 주체성이라고 생각한다.⁸⁾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라는 종이 로봇과 같은 기계적 존재와 신체적 심리적으로 혼합되어 불멸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생물학적 인간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는 인간과 기계의 경

5) Eugen Dühring, *Der Werth des Lebens*, Leipzig: Bibliobazaar, 1881, p.194.

6) 캐서린 헤일즈 저,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플래닛, 2013, 400쪽.

7) Arnold Gehlen,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Berlin: Aula, 1940, p.31ff. 자연 생태계 속 인간은 겔렌(A. Gehlen)의 표현대로 나약함과 연약함을 지닌 “결핍존재(Mängelwesen)”로 인식되었으며 이 결핍을 극복하고 자신을 강화하는 도구수단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8) 한스 모라벡 저, 박우석 역, 『마음의 아이들.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 김영사, 2011, 27쪽.

계가 사라져 버린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인간과 기계의 “공생(Symbios)”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설명한다.⁹⁾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단순히 진화 과정을 거치는 존재라는 인간이해를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즉 이질적인 것과의 혼종과 더불어 공진화를¹⁰⁾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

커즈와일(R. Kurzweil)은 더욱 더 기계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 그는 인간 결합/결핍의 원인을 인간이 지닌 낮은 정보처리 속도와 그에 따른 낮은 환경적응력이라고 설명한다. 낮은 처리속도는 생존을 위협하는 불리함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물학적 연약함을 과학기술적 “유전 교체”를 통해서 진화의 주체로 변화할 것을 그는 요구한다.¹¹⁾ 이는 핫산(I. Hassan)이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제시할 때 이미 드러난 의미, 즉 “인간의 프로메테우스적 한계극복”을 의미함과 더불어 “휴머니즘을 극복하려는 철학적 시도”를 의미한다.¹²⁾ 매즐리시(B. Mazlish)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 본성이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는 실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적응이란 더 이상 다윈적 의미의 자연적응이 아니라 보철기구 활용에 의한 인위적 과학기술적 적응을 의미한다.¹³⁾ 다시 말해 포스트휴먼 시대

9) 앞의 책, 136쪽. “기계가 유연성과 주도권에서 성장함에 따라 인간과 기계사이의 이 연합은 더 적절하게 파트너십으로 묘사될 것이다. 머지않아 그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해지고 ‘자연적’ 파트너와 ‘인공적’ 파트너의 경계가 더 이상 명백하지 않은 공생이 될 것이다.”

10) 스투어트 카우프만 저, 국형태 역, 『혼돈의 가장자리』, 사이언스북스, 2002, 129쪽. “생태계의 이야기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공진화(coevolution)의 이야기이다. 거의 40억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 저절로 생기는 질서의 이야기는 이 분자와 생물들의 공진화에서 계속된다.”

11) Raymond Kurzweil, *The Age of Intelligent Machines*, Cambridge: MIT Press, 1990, p.5ff.

12) Ihab Hassan, *Prometheus as a Performer - Toward a Posthuman Culture? A University Masque in Five Scenes*, *Georgia Reviews* 31, 1977, p.845.

13) 브루스 매즐리시 저, 김희봉 역, 『네 번째 불연속』, 사이언스북스, 2001, 19, 20쪽. “인간의 물리적인 변화는 보철, 즉 기계적 수단에 의한 적응 외에는 거의

에 인간의 자연 진화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인위적 탈진화가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인정하여 진화의 주체를 인간이라 가정한다면, 인간의 진화와 발전 방향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공진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자연적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탈진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공진화와 탈진화가 휴머니즘 이후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적 해결책인가라는 비판적 질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진화론에 입각해보면 자연은 강자에 의한 진화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적 생명체 중 자연은 보다 더 진화되고 발전된 과학적 내지는 과학기술적 생명체를 진화의 동력으로 인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진화과정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결국 도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인간의 결핍과 취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수단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과학기술 자체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¹⁴⁾

공진화이든 탈진화이든 진화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일정부분 인간의 자리가 과학기술에게 양도됨을 내포한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지배하던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던 전통적 자연 진화 모델과 휴머니즘적 세계관은 흔들린다. 왜냐하면 근현대 인간이 과학기술을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과 사물에 적용하였다면, 다시 말해 기술의 주체로서 인간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통제하였다면, 유전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은 인간의 신체 내부에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인간의 생존조건과 존재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¹⁵⁾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는 인류문화의 주요 부분이며,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기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인류 진화의 새롭고도 복잡한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 기계의 '진화'는 자연선택보다 인위적인 선택에 가깝다.”

14) Raph Tille, *Visuelle Virtualität - Hybride Erweiterung der Wahrnehmung*, In: 『Maschinen, die unsere Brüder werden』, Hrsg. v. Ch. Hubig, München: Wilhelm Fink, 2008, p.197.

이러한 과정을 인정한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결국 “가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며, 분리되거나 재구성될 유전자의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 ... 이렇게 자연종의 개념이 해체되면서, 동시에 인간 종의 개념도 해체된다. 여기서 인간 종과 비인간 종, 즉 인간과 인간 아닌 다른 동물 사이의 경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¹⁶⁾ 이렇듯 인간이라는 종의 고유한 성질이 소멸되고 과학기술의 실용성과 유용성이 인간의 삶에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분명 과학기술의 영향력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진화론적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새로운 진화 가능성은 요나스(H. Jonas)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제품들이 거꾸로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통해 점점 더 “새로운 종류의 자연(본성)을 발생”시키게 된다.¹⁷⁾

과학기술과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러한 숙고는 휴머니즘에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담론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혹은 인위적으로 제작된 존재에 대한 인식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즉,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이원론적 이해방법의 소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지방법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¹⁸⁾ 물론 과학기술과 포스트휴머니즘은 인류의 공리적

15)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82. 진화를 통한 진보와 발전은 두 가지 방향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을 위한 진보와 발전 방향으로 과학기술과 인간의 공진화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향, 둘째, 연약한 인간의 신체를 포기하고 신체로부터 벗어나는 탈신체적 방향으로, 여기에는 인간 자체가 테크놀로지와 합체하여 신체를 극복하고 테크놀로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공통점은 포스트휴먼은 인간에게 자연적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이상의 것이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16) 김선희, 『과학기술과 인간정체성』, 아가넷, 2012, 44쪽.

17) 한스 요나스 저,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서광사, 1994, 33쪽.

18) 이러한 관점에서 크뤼거(O. Krüger)와 아이디(D. Idhe)등의 이론가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즉, 과학기술적 결과물인 기계적 존재를 인간의 준타자로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지배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이익을 추구한다.¹⁹⁾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과 만족이다. 하지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인류의 미래가 과학기술적 낙관주의로 점철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과학기술적 진화와 발전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Ⅲ. 진화하는 인간에서 포스트휴먼으로

1. 진화에서 공진화로: 크라흐트, 『나 여기 햇살과 그늘에 살리라』

크리스티안 크라흐트가 2008년에 출간한 『나 여기 햇살과 그늘에 살리라』는 허구의 가상 국가인 스위스-소비에트 연방공화국(SSR)에 소속된 아프리카 출신 장교인 서술자와 기계적 존재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휴머니즘적 가치관이 소멸되는 혼돈 상태에서 인간이 제작한 기계적 존재와 공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창발이 가능한가를 타진한다.

인간과 기계적 존재가 함께 하는 새로운 세상인 가상 국가 “SSR의 힘은 바로 인간다움”이다.²⁰⁾ 그러나 SSR이 추구하는 인간다움이란 휴머니즘이 추구하는 인간다움과는 다른 모습이다.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인간다움을 추구한다면 SSR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포괄하는, 즉 유기체인 생물학적 존재와 무기체인 기계적 존재의 이분법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인간과 기계적 존재의 공진화를 기반

Unsterblichkeit. Die Visionen des Posthumanismus, Freiburg: Rombach, 2004. 그리고 돈 아이디 저, 김성동 역, 『기술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8을 참조 할 것.

19)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272.

20) “Die Stärke der SSR war ihre Menschlichkeit.” (SS. p.20.).

으로 하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SSR이 추구하는 이 새로운 세계는 아직 과도기적 혼돈 상태로 옛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이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적 존재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일례로 기계적 존재인 “그의(= 브라친스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정말로 평범해 보였다.”²¹⁾ 군장교인 서술자가 체포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만나는 브라친스키(Brazhinsky)와 파브레(Favre)는 생물학적 신체와 동일한 외형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계적 존재이다.²²⁾ 하지만 인간인 서술자는 기계적 존재와 생물학적 존재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일종의 혼돈스러운 공존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돈스러운 공존상태의 상징이 바로 언어를 통한 의미전달 및 전송방법의 변화다. SSR은 인류문화의 상징인 문자와 활자문화가 소멸되고 구술언어가 지배하는 곳이다.

“언어란 상징적인 소리들의 집합체예요. ...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신인류를 향한 첫 번째 초석이 될 거예요.”²³⁾

이른바 구텐베르크 갤럭시는 휴머니즘적 이상향을 추구하는 유용한 도

21) “Sein auffälligste Merkmal war seine fast abnorme Unscheinbarkeit, er sah ausserordentlich durchschnittlich aus.” (SS. p.106.).

22) “Neben seiner Achselhöhle glaubte ich die Umriss einer Steckdose zu sehen. ... Ihr Nacken roch nach Metall. ... Neben ihrer Achselhöhle war eine Steckdose in die Haut eingelassen, wie die Schnauze eines Schweins.” “그의 (=브라친스키) 겨드랑이 옆에서 콘센트 모양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녀 (=파브레)의 목덜미에서는 금속 냄새가 났다. ... 그녀의 겨드랑이 옆, 피부 속에는 돼지코모양의 콘센트가 박혀 있었다.” (SS. p.129.).

23) “Sprache ist eine Ansammlung symbolischer Geräusche. ... Niemand ist mehr im Frieden geboren. Die Generation, die nach uns kommt, ist der erste Baustein zum neuen Menschen.” (SS. p.43.).

구수단이었지만 보다 더 진화한 인류세계에서는 단지 퇴화된 의사소통체계 일 뿐이다. 무엇보다 96년간 지속되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존재론적 의미론적 전략이다.

“전쟁은 우리를 변화시켰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째로 변화시킨 거죠.”²⁴⁾

인간이든 기계적 존재이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한 의사소통방식이 필요한데, 작가 크라흐트는 소위 “연기언어(Rauchsprache)”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구텐베르크 갤러시의 종말을 선언하는 문자/글자의 소멸과 더불어 사고전송을 담당하는 것이 연기언어다. 새로운 의사소통체계는 음성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음성이란 인간의 신체기관을 활용한 발화행위인 동시에 “상징적 소리들의 집합체”인데, 기계적 존재는 이 방식을 담지 할 유기체적 신체기관이 없다. 따라서 기계적 존재들이 사용하는 의사전달 시스템은 생물학적 신체기관을 넘어서는 동시에 기계적 존재와도 소통하기 위한 의사전달 수단이다. 기계적 존재가 사용하는 연기언어는 무선통신과 상당히 유사하게 작동한다.

“그런데... 무선전파라는... 그 구조는 구술언어에 의존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언어를 연기언어라고 불러요. ...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문자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활자는 점점 더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²⁵⁾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 시스템은 생물학적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가

24) “Nun, der Krieg verändert uns, nicht nur körperlich und mental, sondern als Ganzes, als Einheit.” (SS. p.42.).

25) “Es ... der Funk ... die Struktur basiert auf dem gesprochenen Wort. Unsere Wissenschaftler nennen es eine Rauchsprache. <...> Wir bilden uns evolutionär von der Schrift weg, sie wird immer unwichtiger.” (SS. p.42.).

아니라 기계적 존재인 로보 사피엔스만이 소유한 일종의 진화되고 발전된 시스템이다.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의 진화 그리고 과학기술적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이 인간의 신체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²⁶⁾ 이 작품에서 기계적 존재는 신체적 향상 뿐 아니라 정신과 사유 측면에서도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진화의 최종 결과물은 기계적 존재들이다. 일례로 서술자는 브라친스키를 체포하기 위해 알프스 요새로 들어가지만 오히려 브라친스키를 통해 연기언어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 시스템은 서술자를 무기력 상태로 변화시킨다.

“브라친스키가 입을 열자 나는 엄청난 타격을 느꼈다. 그의 의지는 정말로 손에서 총을 놓도록 만들었고, ... 심하게 덜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권총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브라친스키는 입을 다물었다.”²⁷⁾

서술자는 브라친스키가 사용하는 언어체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에게 연기언어는 음성적 발화체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이지만 기계적 존재에게 언어는 더 이상 음성적 발화행위가 아니다. 이들에게 언어는 ‘물적’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언어는 물적인 것입니다. 누메논이죠.”²⁸⁾

26) Klaus Gilgemann, *Menschwerdung durch Technik*, In: 『Enhancement oder die Verbesserung des Menschen』, Hrsg. v. O. Bender, Innsbruck: Books on Demand, 2012, p.69.

27) “Brazhinsky öffnete den Mund, und ich erhielt einen gewaltigen Stoss versetzt, sein Wilen drückte erst mit der Waffe aus der Hand, ... Die Revolver fielen mit laut-scheppernem Getöse auf den steinernen Boden, und Brazhinsky, schloss den Mund.” (SS. p.108.).

28) “Sie (=Sprache) ist zutiefst dinglich, sie ist ein Noumenon.” (SS. p.44.).

서술자는 브라친스키의 지도하에 이 새로운 언어를 시도한다. 이“새로운 언어는 매우 대상적이었다. ... 나는 내가 단어, 문장 그리고 생각들을 공간에 밀어내고, 즉 공간적으로 투사하고 있음을 느꼈다.”²⁹⁾ 그가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 즉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물질화해서 ‘공간적으로 투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언어가 ‘물적’이며 ‘대상적’이라는 것은 언어가 인간의 자연적 언어 상태를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는 자연환경 적응과 생존을 위해 자신을 주체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언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인간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유형의 진화를 의미한다.

“소행성이 지구로 와서 충돌한 후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버섯은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진화가 어떤 정점에 이를 때까지. 인간이 충분히 영리해질 때까지, 그래서 실로시빈 버섯을 복용함으로써 인류의 유산을 신체 내부에 잡아둘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새로운 언어는 하나의 바이러스인 셈인 거죠.”³⁰⁾

인간의 신체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유형의 진화를 유발하는 일종의 바이러스로 인간을 지배한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지닌 감염력이 상당히 강력해서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브라친스키로 대변되는 기계적 존재들은 인간의 음성언어

29) “Das Sprechen war sehr gegenständlich. ... Ich bemerkte, dass ich die Worte, Sätze und Gedanken im Raum nach vorne schieben, ja in gewisser Weise projizieren.” (SS. p.125.).

30) “deren (=Pilze) Sporen sind aus den Tiefen des Kosmos mit Hilfe von Asteroiden auf der Erde gebracht worden, diese schlummerten nach dem Einschlag Jahrmillionen, bis die Menschheit eben jenen Punkt ihrer Evolutionsgeschichte erreicht hat, sprich klug genug geworden ist, deren Erbmasse durch Einnahme dieser Pilze in ihren Körper aufzunehmen. Unsere Sprache ist ebenso ein Virus.” (SS. p.126.).

뿐만 아니라 연기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새로운 주체이다. 다시 말해 진화의 주체는 자연 속의 인간이 아니라 무기체적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서술자의 휴머니즘적 이상은 기계적 존재를 통해 보다 더 발전하고 진일보한 진화적 단계로 흡수되는 것이다.³¹⁾

전통적 휴머니즘과는 달리 이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이질성은 인간과 기계의 고유성이 상호 침투하여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물학적 인간은 자신을 진화의 주체로 이해하지만 기계적 존재는 유기체와 무기체라는 이질적 속성들의 공진화 자체를 진화적 발전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적 존재의 진화적 발전과정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유기체와 무기체의 이분법적 경계는 무기체인 기계적 존재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³²⁾ 휴머니즘적 이상향이 사라지는 곳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점차 다가온다.

“여름이 가까워져 왔고, 추위도 지나갔으며, 빙하는 녹았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아주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다.”³³⁾

31) 과학기술이 만들어주는 이러한 인간 유사 존재, 즉 브라친스키와 파브레를 과학기술적으로 완벽하고자하는 인간이 만든 돌연변이적이며 돌출적인 존재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이 사용하는 연기언어는 포스트휴먼 진보프로젝트의 상징이다. 브라친스키와 파브레는 과학기술적으로 향상되고 진화된 존재, 즉 인간-기계의 하이브리드적 사이보그적 존재이다.

32) 김선희, 『과학기술과 인간정체성』, 53쪽.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기계는 모두 의사소통하는 정보처리 기계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그리고 기계는 의사소통하는 유기체이다. 특히 분자생물학에 따르면 생명이란 정보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정보의 결집체이다. 이제 생명의 핵심은 더 이상 생기, 파스함, 호흡, 생명의 활기 같은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저장과 이용, 전달능력, 자기복제 및 재생산에 있다. 생명이나 유기체는 정보의 다발이며 또한 정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컴퓨터/기계나 유기체/동물이나 인간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33) “Es war der nahende Sommer, das Weichen der Kälte, das Schmelzen der Gletscher, die Offenbarung einer neuen Zeit, die zwar noch langsam und kriechend, dafür aber unaufhaltsam in die Welt drängte.” (SS. p.138).

그러나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작가 크라흐트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일례로 과학기술적으로 진화한 존재인 브라친스키는 자연적, 생물학적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학을 전공한 브라친스키는 ... 항상 유기체를 불신하며 질병과 죽음을 거부하는 이타주의적 회의주의자란 말인가?”³⁴⁾

그러나 그 역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독일-영국 파시스트들의 집중포화로 인해 알프스 요새가 파괴되자 그는 광기에 휩싸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특히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아프리카에 문명을 전파하는 건축가 뢰어리히(N. Roehrich)의 자살은 건축으로 상징되는 인류 유토피아의 소멸을 의미한다.³⁵⁾

“밤사이 모두들 도시를 떠나갔다. 아프리카인 거주자들은 시골마을로 되돌아갔다. ... 아프리카의 태양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전에 건축가는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 하이에나가 그의 발을 먹기 전까지 그는 며칠 동안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³⁶⁾

브라친스키와 뢰어리히의 죽음은 유한성이라는 한계가 과학기술시대에도 극복되지 못함을 상징한다. 크라흐트는 이 작품을 통해 인류의 소멸을 지적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욕망

34) “Brazhinsky, der Medizin studiert hatte, ... war er jener altruistische, am Organischen stets zweifelnde, die Krankheit und den Tod ablehnende Skeptiker?” (SS. p.116.).

35) Claude D. Conter, *Ch. Krachts posthistorische Ästhetik*, In: 『Ch. Kracht. Zu Leben und Werk』, hrsg. v. J. Birgfeld und C. Conter, Köln: Kippenheuer und Witsch, 2009, p.24.

36) “Ganze Städte wurden indes über Nacht verlassen, und ihre afrikanischen Einwohner kehrten zurück in die Dörfer. ... der Architekt ... erhängt sich, bevor die afrikanische Sonne zu heiss wurde. ... Er hing ein parr Tage, dann assen Hyänen seine Füße.” (SS. p.149.).

을 비판한다.³⁷⁾ 또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포스트휴먼적 공진화 모델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안적 가능성일 뿐임을 그는 지적한다.³⁸⁾

2. 진화에서 탈진화로: 케르너, 『블루프린트』

샤를로테 케르너의 『블루프린트』는 천재적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어머니 이리스 셸린(Iris Sellin)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클론 베이비 시리 셸린(Siri Sellin)의 인간되기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이리스는 예술가로서의 성공과 절정의 시기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된다. 그녀의 신체적 몰락은 유기체인 인간의 자연적 과정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유한성과 소멸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리스는 생명의 소멸을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극복하려한다. 따라서 이리스에게 복제는 죽음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탈진화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탈진화 과정은, 모어(M. More)의 표현에 따르자면, 인간과 과학기술의 연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통적 사고체계의 붕괴에 따른 “새로운 계몽”을 의미한다.³⁹⁾ 물론 이 새로운 계몽은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에 기반을 두는데, 슬로터다이크(P. Sloterdijk) 또한 그 자체로 불완

37) Elmar Krekeler, *Kracht bringt Krieg in die Schweiz*, In: Welt-Online, am 22. Sep. 2008.

38) Johannes Birgfeld/Claude D. Conter, *Morgenröte des Post-Humanismus*, In: 『Ch. Kracht. Zu Leben und Werk』, p.268.

39) Max More, *Im Gespräch mit Gundolf Freyermuth*, In: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141. “Extropianismus ist die erste Philosophie nach dem Scheitern der traditionellen Denksystems am Ende dieses Jahrhunderts. ... Wir entwickeln die erste systematische Philosophie für das nächste Millenium. Wir sind die neue Aufklärung.” “전통적인 사고체계의 붕괴 이후 엑스트로피언은 최초의 철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천년을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철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계몽입니다.”

전한 인간이 생명공학적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기술 규범(Codex der Anthropotechnik)”을 요구한다.⁴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생산되고 제작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블루프린트』의 경우처럼 복제를 통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곧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진화의 규칙과 틀을 벗어나는 동시에 과학기술로 인한 진보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계몽”과 “규범”을 상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생명의 탄생과 소멸은 결국 과학기술적 도구수단의 사용자인 인간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⁴¹⁾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단지 진화과정에 종속될 뿐이지만 이제는 진화의 주체가 된 것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마어마한 생물학적 성과물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유전자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다.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⁴²⁾

진화의 주체가 된 인간은 죽음이라는 자연적 소멸과정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는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연적 생태계와 진화과정을 통제하고 지배하여 스스로 신과 유사한 존재로 변화함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하우스켈러 (M. Hauskeller)의 표현대로 인간의 생물학적 신체는 단지 결합과 결합의 집합체이자 무의미함 그리고 소멸의 상징일 뿐이다. 즉, 인간의 신체란 단지 허약하고 영성하

40) Peter Sloterdijk, *Regeln für Menschenpark*, Frankfurt/M.: Suhrkamp, 1999, p.45.

41)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135, 263. 에스판다이어리 (Pereidun M. Esfandiarty)는 인간이 죽음에 얽매어 있는 존재인 한,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 진화의 우연성 원칙이 아니라 이성을 토대로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재구성 (redesign)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42) “Unser freier Wille ist doch die grossartigste biologische Leistung! Da können einem alle verdammten Gene gestohlen bleiben. Wir können uns ändern, wenn wir nur wollen.” (SS. p.126.).

게 설계된 조직물일 뿐이다.⁴³⁾ 이러한 이유에서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인류가 생물학적 신체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과론적 합목적성으로 과학기술적 결과를 정당화한다.

“이 아이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에만 이 아이는 의미와 정당성을 갖는다. ... 이리스, 너는 나무줄기이고 나는 봄날 움트는 새싹이야. 바로 그것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클론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지.”⁴⁴⁾

복제 역시 결과에 입각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제 인간인 시리는 복제된 인간으로서의 목표가 달성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정당성을 갖는다. 그 의미는 원본인간인 이리스의 예술성을 연속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리라는 인간적 가치의 자리에 과학기술이 등장하여 시리라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게 된다. 결국 과학기술이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새로운 “규범”과 “계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기술 지배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감성은 사라지고 기술적 강자의 논리와 더불어 기술을 소유하는 자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는 일종의 기술이 권력”이 형성되는 것이다.⁴⁵⁾

43) 마이클 하우스켈러, 「뒤죽박죽인 신체들. 성형수술에서 정신 업로드까지」, 실린 곳: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인문과학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44쪽.

44) “Dieses Kind hatte einen Zweck, und nur wenn es diesen Zweck erfüllte, hatte es einen Sinn, hatte es eine Recht zu sein. ... Du warst der Stamm, Iris, und ich dein frühlinggrüner Spross. Genau das bedeutet der aus dem Griechischen kommende Ausdruck Klon.” (SS. p.40, 44.).

45) 이진우, 『테크노 인문학』, 책세상, 2013, 227쪽. “생명공학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간단하게 ‘다자인 Dasein’에서 ‘디자인 Design’으로라는 명제로 서술될 수 있다. 실존철학의 중심 개념인 다자인은 ‘자연에 의해 우연히 부여된 실존’을 의미한다. 실존철학은 물론 우연한 실존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의 계획으로 디자인된 실존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자유가 박탈된 것이다. <...> 몸은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외면적 자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자연의 다른

그러므로 슬로터다이크와 모어를 비롯한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존재는 자연적 진화와는 무관한 것이며, 오로지 과학기술과의 공존 및 융합을 통한 발전, 즉 진화를 초월하는 과학기술 기반 진화를 가능하게 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결국 복제는 ‘기술적 권력’을 소유한 이리스와 과학기술에 의해 계획된 것이기에 복제인간인 시리는 의존적 종속성과 목적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복제인간 시리의 고유한 자유의지와 미래는 처음부터 박탈된 것이다. 이에 대한 상징이 바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박탈당한 시리의 울음소리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시리)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커다란 울음 소리를 통해 자유에 대한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건 엄마가 처음부터 박탈한 것이었죠.”⁴⁶⁾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미를 박탈당한 시리에게 남는 것은 자의식의 부재 그리고 원본인간 이리스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이리스의 연속체로서의 종속적, 합목적적 결과물인 복제존재이다. 그러므로 시리의 내면은 곧 이리스의 것이다.

“네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나야. 우리는 하나야. 내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녀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렸다.”⁴⁷⁾

그러나 복제인간인 시리는 성인이 되는 성장과정에서 자의식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 시리는 출생시 박탈당한 탄생의 울음을 다시 획

대상물처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특정한 몸으로 ‘존재하는’ 한에서만 우리의 몸을 ‘가질’ 수 있다.”

46) “Bei meiner Geburt meldete ich nicht wie alle anderen Kinder mit einem lauten Schrei meinen Anspruch auf Freiheit an. Das hatte Iris mir schon ausgetrieben.” (SS. p.36.).

47) “Das war doch ich, die aus dir sprach. Wir sind doch eins. Endlich hat sie begriffen! Es war von Anfang an immer nur sie, die aus mir sprach.” (SS. p.52.).

득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원본인간인 어머니 이리스의 죽음이다.

“시리는 이제야 비로소 올 수 있었다. ... 태어난 지 거의 22년이 지난 6월의 어느 여름날, ... 나는 드디어 ‘나’가 된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침내 ‘나라는 개인’이 된 것이죠. ... 이날 나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⁴⁸⁾

시리라는 복제인간을 통해 이리스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리스의 죽음은 복제인간 시리가 독립적 존재가 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시리는 이제 ‘두 번째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비로소 출생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스물세 살이 되면 시리는 이제 정식으로 예술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 그녀의 그림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될지 야네가 물었다. 복제인간적이겠지! 시리가 대답했다.”⁴⁹⁾

시리의 ‘복제인간적’이라는 자기이해는 이리스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습이 아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와 성장 및 발전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시리의 자기이해는 원본인간인 이리스의 의도와 상응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결국 자연적 진화를 극복하려는 과학기술적 진화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주장대로 인간의 자기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⁵⁰⁾ 과학기술에

48) “endlich konnte sie (=Siri) weinen. ... Fast zweiundzwanzig Jahre nach meiner Geburt, ... Ich war zu einem Ich geworden, einzig und zum ersten Mal ungeteilt, endlich ein Individuum. ... An diesem Tag begann mein zweites Jahr.” (SS. p.155).

49) “Im dreiundzwanzigsten Jahr würde Siri ihr Kunststudium beginnen. ... Alles sollte anders werden, mutiger und radikaler. Wie ihre Kunst denn werden sollte, fragte Janek. ‘Einfach klonig’ war Siris Antwort.” (SS. p.164).

50)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은주 역,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나남, 2003, 41쪽. 하버마스는 인간 복제 기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기반을 둔 탈진화는 휴머니즘 이후 생성되는 휴머니티와 전통적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휴머니티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 태어나냐 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생명 권력이 마침내 인간의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⁵¹⁾

이 작품에서 ‘나’라는 인간과 과학기술적으로 복제된 생산물인 ‘나’라는 (복제)존재의 공존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존재들 간의 연결처럼 보인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 존재가 존재론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원본인간(자연인)과 복제인간(인공존재)은 단순히 육체를 복제함을 넘어 정신과 영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이 작품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적 생산물인 복제인간을 통한 포스트휴먼적 탈진화가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과학기술적 낙관주의를 작가 케르너는 비판한다.

IV. 나오는 말

과학기술을 인간이해의 핵심요소로 파악하는 포스트휴먼 관점에 따르면 비물질적 주체와 물질적 세계는 더 이상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계적 존재 혹은 복제인간과 같은 과학기술적 생명체와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 자체는 불투명해지고 희미해져 결국 사라지고 만다. 나아가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이러한 과학기술적 발전이 인류의 긍정적

주체들의 윤리적 자기이해 전체가 문제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진우 역시 인간의 자기이해 변형과 혼란을 주장한다. “자율적인 인격들 상호간의 관계는 가역성(可逆性)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만약 유전자조작을 통해 자식을 디자인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경직될 수 있다. ... 인간 복제는 이렇게 인류의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진우, 『테크노 인문학』, 223쪽 참조).

51) 이진우, 『테크노 인문학』, 208쪽.

이며 낙관적인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계적 존재이든 복제된 생명체이든 과학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 적 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일례로 크라흐트의 『햇살』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기계적 존재 그 자체가 인간의 소유물인 동시에 인간과 공진화하는 파트너 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즉, 인간과 기계적 존재간의 공진화가 인정 된다면 유기체인 인간과 무기체인 기계적 존재간의 동질성이 확보되는가 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이 질문은 휴머니즘 이후 인간이라는 근원적 고민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기계적 존재에게는 “인간이 가 지는 개인 또는 종으로서의 ‘역사적인’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이다.”⁵²⁾

다른 한편으로 케르너의 『블루프린트』의 경우처럼 생명체의 자연 진화 역시 과학기술적 대상이 된다.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의 진화 과정은 우연의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의 산물인 신체를 버리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이성적 합리적 진화이며, 생존 경쟁과 투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⁵³⁾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자연 진화를 거부하 거나 또는 상실하게 만들어 결국 자연 진화는 탈진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에 따르면, 휴머니즘적 인간이해의 자리에 과학기술적 인간이해라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일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포스트휴먼 논의의 중요사항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일즈(K. Hayles)의 견해처럼, 신체가 과학기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곧 인간 그리고 신체가 지닌 의미의 사라짐이라고 단정 지 을 수 없다는 것이다.⁵⁴⁾

52) 브루스 매즐리시, 『네 번째 불연속』, 319쪽.

53)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316.

54) 캐서린 헤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499쪽. “신체는 문화 적 의미와 공명하는 은유를 통해 해석되는 응결된 은유이며, ... 인간은 지능을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자칫 범할 수 있는 기술 만능주의나 기술 중심주의의 자리에 크라흐트와 케르너의 작품은 균형과 평형을 이루기 위한 질문을 제기한다. 크라흐트는 인간과 기계적 존재의 공진화 모델 비판을 통해 그리고 케르너는 복제인간이라는 생물학적 한계 초월 모델 비판을 통해 과학중심주의가 선물하는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과학기술적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류는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

가진 기계와 공생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지능을 가진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지능을 가진 기계와 매끄럽게 접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지능을 가진 기계의 신체화는 여전히 인간의 신체화와 상당히 다르다.”

• 참고문헌

- 김선희, 『과학기술과 인간정체성』, 아카넷, 2012.
- 돈 아이디 저, 김성동 역, 『기술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8.
- 브루스 매즐리시 저, 김희봉 역, 『네 번째 불연속』, 사이언스북스, 2001.
- 스튜어트 카우프만 저, 국형태 역, 『혼돈의 가장자리』, 사이언스북스, 2002.
-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은주 역, 『인간이란 자연의 미래』, 나남, 2013.
- 이진우 저, 『테크노 인문학』, 책세상, 2013.
- 이화인문과학원(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 캐서린 헤일즈 저,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플래닛, 2013.
- 한스 모라벡 저, 박우석 역, 『마음의 아이들』, 김영사, 2011.
- 한스 요나스 저,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서광사, 1999.
- Bender, Oliver, *Enhancement oder die Verbesserung des Menschen*, Innsbruck: Books on Demand, 2012.
- Birgfeld, Johannes (Hrsg.), *Ch. Kracht. Zu Leben und Werk*, Köln: Kippenheuer und Witsch, 2009.
- Dühring, Eugen, *Der Werth des Lebens*, Leipzig: Bibliobazaar, 1881.
- Gehlen, Arnold,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un der Welt*, Berlin: Aula, 1940.
- Hubig, Christoph (Hrsg.), *Maschinen, die unsere Brüder werden*, München: Wilhelm Fink, 2008.
- Kerner, Charlotte, *Blueprint*, Weinheim: Beltz, 1999.
- Kracht, Christian, *Ich werde hier sein im Sonnenschein und im Schatten*, Köln: Kippenheuer und Witsch, 2008.
- Krüger, Oliv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Die Visionen des Posthumanismus*,

Freiburg: Rombach, 2004.

Kurzweil, Raymond, *The Age of Intelligent Machine*, Cambridge: MIT Press, 1990.

La Metrie, Julien O. de, *L'homme Machine, Die Maschine Mensch(germ.)*, hrsg. v. C. Becker, Hamburg: Felix Meiner, 2009.

Sloterdijk, Peter, *Regeln für Menschenpark*, Frankfurt/M.: Suhrkamp, 1999.

Posthuman Utopia?

— Posthuman Mankind between
Coevolution and Postevolution —

Kim, Eung-Jun*

The paper takes a critical approach of examining a correlation between natural evolution and scientific-technological evolution in the posthuman era. Posthumanists claim that mankind will find it no more possible to maintain the process of natural evolution. They add that natural evolution of mankind will be governed by the scientific-technological utility and efficiency and therefore cannot be free from their control power, suggesting that utopian optimism will prevail in the scientific-technological post-human era. However, *Ich werde hier sein im Sonnenschein und im Schatten* by Christian Kracht and *Blueprint* by Charlotte Kerner criticize both the possibilities of coevolution with machines and the possibilities of postevolution of overcoming finality of creatures through reproduction. The two books also maintain that the acquisition of reciprocal identity through coevolution of mankind and science-technology and the attempt to overcome naturalness and finality through postevolution will ultimately be faced with limitation.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scientific-technological development will not offer posthumanistic optimism and utopia but bring about the future of dystopia wher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human being will lose its meaning.

* Professor, Daejeon University

Key words: Human, posthuman, coevolution, postevolution,
technopia.

필자 E-Mail: waldruhe@dju.kr

투고일: 2015년 7월 17일 /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5일